

주일 예배 11시

2017년 12월 17일(셋째 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

예배로의 부름

사회: 김성진 집사

*찬송 왕 되신 주(24장) 다 함께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교독문 117번 다 함께

*찬송 거룩한 밤(622장) 다 함께

기도 김동진 형제

찬송 오 베들레헴 작은 골(120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그리스도 예수: 6. 진리에 눈 뜨게 하시는 분(요 9장 1-7절)

*찬송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381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일은 오전은 성탄절예배로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모임(밤 11시)

-금주 읽을 성경: 시편 66-72편,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야고보서

- 기도해 주세요-
- 1.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
- 2.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 3.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
-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순례자의 목상

내 주님의 돕는 이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붙잡을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그 무엇도

나의 마음을 붙들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

그 몸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몸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 땅에서

굉장한 그 무엇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내 주님의 돕는 이로

결에 서고 싶습니다!!

인내의 골짜기

배경복

긴긴 겨울밤의 매서운 눈보라를
혹독히 치루며 견디고 지탱해가는
나무 한 그루...

초라하고 어설피 보이지만
강하게 자기를 지켜가며 우뚝 서 있는
양상한 나무 가지들이
왠지 대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시절을 지나고 나면
푸른 잎으로 향기 나는 꽃내음으로
우리들을 자극해오지 않던가요.

시련의 골짜기의 다스림.
인내의 골짜기의 다스림.
때론 넘어짐과 짓눌림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의 불드심이 있기에
아비가엘의 환경일지라도
사르밧 과부의 환경이 엄습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이 땅에서
나그네란 의미가 새로워지고
강하여져 가므로
내 안에 형성되어지는
향기 나는 주의 사람으로
불들리고 싶습니다.

주님 생각하면

김선순

천국에 가신 주님 생각하면
이 땅은 나그네로만
잠시 머물고 싶어져요.

천국에 계신 주님 생각하면
따뜻이 눕기보다는
형제들과 허리띠 동어매고
서 있음이 더 편해요.
세상의 부요와 배부름보다
의에 주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해요.

천국에 계신 주님 생각하면
잠잠히 주님 발 앞에 앉아
그의 마음만 붙들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나의 나라로
신속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는 나의 삶이 없지만
주의 길로는 잘 살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추위에 맞서
천국에 계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 파고들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PALOUSE KOREAN CHURCH



2017년 12월 17일(50주) 31권-50호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